[제목] 그들은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마3:1~13)
[일시] 2016년 5월 22일 주일낮예배설교안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PW: 믿음, MIW: 요단강
T.S: 믿음이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1. 서론

1)인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실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며, 예배중에 임재하시어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동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출입구에 들어서는 일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천국에는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고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반적으로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응당 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었다면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가 씻겨지고 없어지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때를 벗겨낼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겨내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목욕할 비용과 목욕할 물까지도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어도, 우리가 직접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벗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치르신 은혜로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직접 그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서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외치셨습니다.

막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몇 번 회개해야 하고 몇 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 번이면 족할까요 아니면 일평생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회개하라(메타노에이테)'는 '메타노에오'라는 동사의 명령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한 번만 딱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피스튜에테)'는 동사도 똑같이 '피스튜오'라는 동사의 명령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딱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의 모형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씻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주는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실 회개에 대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2. 문제제기

1)본문요약 및 의문점 제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와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세례요한에게 나아와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아무 장소에서나 세례를 주면 되었지, 왜 굳이 광야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를 주었을까요? 그냥 물있는 곳이라면 아무데서나 가서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유대광야에서 요단강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굳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를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요단강의 물은 흙탕물인데, 좀 깨끗한 물에서 세례를 베풀면 안 되는 것인가요?

2)청중적 접근

오늘날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받지 아니하고 관수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우리 믿는 이들은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들도 지금처럼 아무데서나 세례받지 말고, 세례를 받으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로 좀 귀찮지만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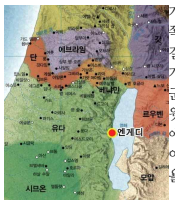
3)본문문제배경

오늘 본문 말씀은 A.D. 27년경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케 한 다음 그들에게 세례를 준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때 세례요한은 유대광야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무리들도 회개했고, 세리들도 회개했고, 심지어 로마군병까지 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그곳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던 장소로부터 꽤나 떨어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 위치를 우선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유대광야는 남유다에 위치한 광야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여리고 남쪽과 사해 서쪽 고원 지대에 걸쳐 펼쳐진 황량한 석회암이 가득찬 곳입니다. 그래도 군데군데마다 오아시스가 있고, 다윗이 숨어지내던 엔게디 근처에는 폭포도 있어 서 목초지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시65:12, 렘 2:22, 눅15:4).



이곳은 구약성경에 보면, '십황무지'(삼상 23:14, 15) 혹은 '마온 황무지'(삼상 23:24), 혹은 '엔게디 황무지'(삼상24:1), '예루엘 광야'(대하 20:16)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땅이 다 남유다에 속해 있기에, 전통에 따라 '유대 광야'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렇다면 폭포가 있어 맑은 물이 흐르는 가장 가까운 곳은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광야의 오아시스와 폭포가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했다면 세례요한은 엔게디로 가는 것이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4)문제발생원인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수십키로 떨어진 저 북쪽에 위치한 요단강, 그것도 흙탕물이 흐르고 있는 베다니근처의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알려진 바로 그 세례터입니다. 오늘날에는 **요단강 카셀르 알 야후드**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지순례객들은 이곳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 즉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단강으로 들어서는 지점**에 위치는 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그 사람들을 이끌고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5)문제 심리묘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3. 문제해결

1)인간의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까지 올라가서 그 흙탕물으로서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2)하나님의 주권(방법, 심정)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해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려 하십니다.

가. 먼저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만 시키면 되었지 왜 그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1:33 나도 그(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하나님)**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져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

섰기에

뿐만 아니라, 둘째로, 말로서 자기들의 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회개한 죄가 어떻게 씻겨지며, 어떻게 죄짓던 자신의 옛 사람이 물속에 장사되었는지를 또렷이 경험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세례의 종류는 2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관수세례인데 이는 물로 죄를 씻겨낸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침례인데 그것은 물 속에 자신을 장사지내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그 모습을 모십시오.

나. 하나님은 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으로 올라가서 세례를 주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주도록 하시지, 굳이 흙탕물로 가득한 요단강까지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주게 했던 것일까요?그 이유는, **세 가지의 놀라운 영적인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곳은 과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이 묻어놓고(수4:9), 그곳에서 새로운 12개의 돌이 캐내어 가져온 장소이기 때문입니다(수4:20).

요단강을 건넌 후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땅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육체적인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생활을 갈망하던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생활이 4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땅으로 인도해 들어는 여호수아,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데, 그가 과거 죄악된 옛생활을 좋아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12지파를 대시한여 12개의 돌을 요단강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안에서 12개의 돌을 캐어다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 가나안땅의 첫숙영지 길갈에 그 돌들을 세워두었습니다(수4:3,8,19~20) 이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탄마귀에게 노예로서 살면서 죄를 짓기 좋아하던 옛 12지파 사람들을 다 물 속에 장사지내고, 이제는 물 가운데서 새로 살아나온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가나안땅에 둠으로써, 옛사람을 장사지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만이 가나안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롬6:3-4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롬6:5-6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란 과거의 나를 장사지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일평생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가나안땅에 세우둔 12개의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엡4:22-24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둘째, 그곳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선지자가 죽어서 곧바로 천국에 올라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옛사람을 장사지내고 새사람으로 사는 세례의 참된 의미가 들어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부수적으로 요단강은 2가지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진짜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곧바로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왕하2:7~11).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세례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는 마지막의 결정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그곳이 나아만장군의 영적인 교만이 깨어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은 문둥병자였던 아람나라의 군대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그곳에 들어가서 일곱 번 자기의 몸을 잠금으로 그의 문둥병이 나았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은 불평했습니다. 아람나라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와서 당처에 손을 흔들고 기도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왕하5:11). 그때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하5: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그렇습니다. 아람나라에 있는 유명한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강물도 깨끗하고 좋은데 굳이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서 자기의 몸을 씻어야 하느냐**면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문둥병이 낫게 된 것은 요단강의 흙탕물이 효험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한 것은 **나아만 장군처럼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만을 생각하는 교만을 꺾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

니까? 그들이 **비록 세례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나아왔지만 그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례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할례와 의식적인 율법의 준수가 그들을 구원해주기에 충분한데, 무엇이 부족해서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요한의 세례를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고,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일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버럭 화를 냈지만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내려놓고 흙탕물 속에 들어감으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같이 회복하게 되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왕하5:13~14).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도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3)청중의 문제와 해결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받으려면 옛사람을 장사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죽은 다음 곧장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진 신분이나 위치를 자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들도 천국에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3대째 신앙의 가정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믿은지 수십년이 되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요단강에 우리자신을 장사지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4. 영적 법칙

믿음이란 **자신의 옛사람을 장사지내는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요단강으로 가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날마다 죄짓고 살던 옛사람을 요단강 물속에 장사지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회개를 상징하는 요단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5. 복과 결단

1)복

가. 헌신자가 받는 복

그러자 **세례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요단강으로 올라가서 흙탕물이지만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리들도 세례를 받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았고, 군병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눅3:10~14).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자 중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면서, 죽은 다음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고, 자신의 위치나 신분을 내려놓고 오직 회개와 예수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요1:35~42).

나. 청중의 더 큰 복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물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인 것을 알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은 후에 즉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2)결단

가. 결단의 필요성과 방법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여김과 드림의 법칙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김의 법칙을 적용하십시오(롬6:10~11).

롬6:10-11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둘째, 드림의 법칙을 적용하십시오(롬6:12~13)

롬6:12-13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안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도 대제사장들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나. 결단의 축복

이제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꾸준히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옛사람을 날마다 장사지내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바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기의 과거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도 죽은 즉시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자의 명령과 선포〉

1)감사와 회개

주여,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왜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어야 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례를 통해 자신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례를 통해 옛사람을 장사지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자신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긴 자만이 죽은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가 용서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장자권 누림의 결단

주여, 이제는 날마다 회개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날마다 옛사람을 장사지내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날마다 새사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이제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감을 믿나이다.

3)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

이제까지 회개없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꾀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를 감추어 버리고 회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날마다 회개할지어다. 날마다 옛사람을 장사지낼지어다.

4)오늘의 말씀의 핵심

1. 사람의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로구나.
2. 죄는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라야 비로소 씻겨지는구나.
3. 세례란 자신의 옛사람을 장사지내는 것이로구나.
4. 세례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로구나.
5. 세례의 본 뜻은 죄를 씻음받는 것이며, 죽고 다시 사는 것이로구나.
6. 자신의 위치나 신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구나.